



로고설명
탄자니아에
하나님의 꿈
을 심는것을
상징합니다

2013 첫 번째(1)

NDOTO [dream]

Ndoto zetu zinatimia katika MUNGU

하나님안에서 우리들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TEL.(255)788465031 sghnjh@gmail.com



샬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탄자니아 나정희 서계향 선교사입니다.

이곳은 긴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우기철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행복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곳에서 사역하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여보면,

정규적인 사역으로

키바다교회 사역, 드림유치원 사역, 컴퓨터교실 사역, 지역학교(키바다 세컨다리)사역, 한글학교(교장) 사역이 있습니다.

2013년 현재까지(4월) 행사 사역을 살펴보면

동안교회 단기팀 사역, 키바다 세컨다리 우물공사연결사역, 어린이 축제 사역, 세례식 사역, 성찬식 집례, 청소년 공부방 사역등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소개하는 것보다 조금씩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사역과 지역학교 사역에 관한 사역을 소개 할까 합니다.

키바다 교회 사역

교회 이름은 키바다 지역에 위치하여 키바다 장로교회입니다. 이곳은 순복음 계통의 교회가 많이 있어서 장로교회를 사람들이 잘 모른답니다. 그래도 지역에서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부터는 아이들 예배와 어른 예배를 분리해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신앙교육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점점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 감사가 넘칩니다. 하지만 아직 거의 이슬람들이 많은 지역이라 초기에 예배 중에 아이를 데려가는 부모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은 성도님들이 말씀위에서 이슬람 문화가 아닌 기독교문화로 변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무장한 아이들이 많아지고 키바다 지역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예배중 성가대 찬양



주일학교 찬양시간



주일학교 분반공부시간



부활절 예배 후 전교인교제

지역학교 사역

학교 이름은 키바다 세컨다리(중고등학교)입니다. 학생은 850여명입니다. 종교분포는 85프로 이상이 이슬람 학생들입니다. 이곳에는 전기도 물도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냐고 물으니 현실적으로 물이 없어서 아이들이 물을 길러 30분 이상을 가야한다며 물이라고 답변을 하셔서 여러 기관에 문의를 하여 사랑아프리카와 연결을 해서 우물을 파주었습니다. 이일을 계기로 학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종교시간을 배정받아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찬양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장학생을 선발하여 컴퓨터 교육도 시킬 예정입니다.



공부하는 모습



교장선생님과 함께



물을 보고 기뻐하는 학생들



우물 앞에서 기념촬영

행사 사역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동안교회 청년 단기선교

동안교회 청년들이 지도목사님 포함 38명이 와서 지역교회를 순회하며 사역을 하였습니다.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숙식을 하며 물을 최대한 아껴가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청년의 때에 헌신하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지역이라 의료사역, 사영리 전도, 인형극등의 요소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요청이오고 만약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마이크를 꺼버립니다. 선교의 전략을 새롭게 연구해야 합니다.



숙소는 텐트에서



환자를 사랑으로 돌보고



사영리로 복음제시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 축제

지역 어린이를 위한 전도집회 이지만 전도라는 말은 사용안합니다. 이슬람의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아침 일찍 지역을 돌며 홍보를 하고 간단하게 예수님을 소개도 하고 초청을 합니다. 어떤 집에서는 사나운 개가 있어서 함께 홍보를 하던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1시간이상 따라와 준 아이들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찬양과 말씀과 영접기도와 게임과 식사교제 영화 관람으로 진행되어진 어린이 축제는 이제 마을 아이들 축제로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예수이름이 아름답게 소문나길 기도합니다.



동네 한 바퀴 돌기 전



다같이 동네한바퀴



즐거운 찬양시간



기도시간



게임시간



야외점심시간



영화관람시간

*세례식, 성찬식

부활주일 전 토요일 아침에 매년 인도양에서 세례식을 하고 부활주일에는 성찬식을 합니다. 인도양물에 몸을 잠그면서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는 감격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감격이 변치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삶과 피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길 소망하였습니다. 목사가 없는 교회를 순회를 하면서 성찬식을 하였습니다.



차량으로 이동



다함께 기도를



세례식 장면



성찬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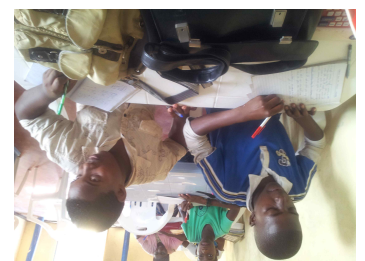


성찬예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28:19)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진학을 앞둔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방향하기 쉬운 이때에 진학에 도움이 되는 영어와 수학과 과학등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모두 진학을 하여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였습니다. 지역가운데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컴퓨터 교실

탄자니아도 점점 정보화의 물결과 미디어의 영향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는 필수적으로 해야되는 과목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컴퓨터를 만져보지도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전원을 켜는 것을 무서워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컴퓨터와 친해지는 아이들을 봅니다. 역시 학생들은 적응이 빠릅니다.



선교 현장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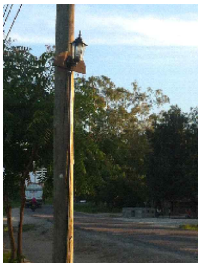
-우리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태어난지 1달이 조금 지나서 병으로 아이가 죽는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무덤에서 통곡하는 부모와 이웃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넘 아팠습니다. 이곳은 유아 사망률이 높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상점에 갔다가 우연히 한 청년의 아픈 손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리고와서 소독약을 바르고 치유를 하고 이슬람 청년에게 기도를 하여주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가능하답니다. 기도 후에 약과 밴드등을 챙겨서 보냈습니다. 만약 방치를 계속했다면 살이 썩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는 이들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대책을 세울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가난의 고리는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밤이면 어둠이 사방을 덮습니다. 그리고 어둠속에서 사건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드림센터 앞 도로가에 가로등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많은 곳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아쉽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더 행복하답니다.

가족이야기를 나눌까합니다.



저희 가족은 은혜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시는 덕분입니다.

지인이는 6학년(한국중1) 지명이는 4학년 지경이는 2학년입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선교사 자녀학교로 37개국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언어는 영어를 사용하고 키스와힐리어도 배워서 아이들은 영어와 키스와힐리어를 구사합니다. 교회에서 아이들 예배가 끝나고 분반공부 시간이 되면 지인이나 지명이는 한국 성경이야기책을 가지고(키스와힐리 책이 부족합니다) 한글을 영어와 키스와힐리어로 번역을 하여 성경이야기를 해주는 작은 선생님이랍니다. 앞으로 선교는 아이들의 몫이 될 것



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막내는 울동을 맡아서 적극적으로 엄마를 도와준답니다.

지원 요청을 합니다.

여름에 여름성경학교를 열고 싶은데 인원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혹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지원자가 있다면 인원을 구성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원은 6명 정도가 좋겠습니다. 기간은 2박3일일정으로 잡으면 좋겠구요. 아이들에게 성경학교는 특별한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제목**을 알려드립니다.

1. 영,육간에 가족들이 건강하고 각종 위험에서(강도, 질병등) 안전하도록
2. 자녀들의 학비가 잘 마련되도록
3. 키바다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4. 키바다지역을 감싸고 있는 악한 영의 흐름이 끊어지도록
(운명론적 사고, 성적인 문란, 가정의 파괴, 생명 멸시등)
5. 이슬람 문화 속에 기독교 문화를 심을 수 있도록
6. 사역하는 모든 것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지혜가 넘치도록